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성경말씀: 욥36:1-33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 논쟁이 끝남(4-31장).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등장해서 32-37장까지 6장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 진술

1.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33). 2. 정의로우시다(34-35), 3. 위대하시다(36-37)

그는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음을 알려줌. 고통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18) 구덩이에 빠질 때에도 구속자를 보내셔서 구속하신다.

욥기의 이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준다.

지난 주 34-35장, 욥의 불평: 1.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심을 증언한다. 정의롭지 않은 분이 어떻게 정의롭게 세상을 치리하는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분은 정의롭다고 고백할 것이다.

우리에게 취사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유한한 머리로 무한한 그분을 평가하지 말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엘리후의 설득에도 욥은 끄떡하지 않는다.

드디어 38장에 직접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38-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증언 이 일을 위해 엘리후는 차곡차곡 준비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5, 22, 25)

마지막으로 설득함, 아직도 할 말이 있다(2). 먼 데서 가져온다(3), 내 말은 진실한 말이다(4).

하나님은 강력하시지만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5).

강력하신 이유: 사악한 자 심판(6), 의로운 자 심판(7),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욥의 불평: 하나님이 무시한다. 하나님의 대답은 No(7), 지금도 여전히 보고 계신다. 너를 높이신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면 잘못을 알려주고 되돌아오게 하신다(8-11).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히12:5-8).

따라서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좋은 일들이, 좋은 날이 온다(11).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12-14). 결국은 위선 가운데 죽는다(13).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이다. 마음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제 욥은 결단해야 한다(16-25)

하나님의 목적(16): 곤경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려 하신다. 욥의 경우에도

욥의 문제: 1.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2. 죽으려고 생각한다(20). 불법(21): 교만한 생각, 불평, 원망 등 절대 자살 No!

모든 소망을 포기하려 하면 이런 생긴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라(22-24).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라(24).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사막 지역의 사계절

1. 가을(36:27-37:5), 여름의 열기 이후 가을의 비, 구름들이 형성되어 비를 내리는 과정 묘사 비가 올 때 천둥소리(4-5)가 나고 번개가 친다(3).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심장이 떨린다(37:1).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야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찾아옴, 쏟아지는 비를 보라. 수많은 짐승이 산다. 이런 모든 것들로 세상 사람들, 짐승들을 먹이신다(36:31).

2. 겨울(37:6-10), 겨울에는 대개 손을 놓고 쉬다(7-8). 이때에 하나님이 눈도 내리고(6) 서리도 내린다(10). 북극과 남극, 알래스카 대륙, 지리산, 설악산을 보라.

3. 봄(11-13), 다시 비를 내리는 구름들 형성. 심지어 구름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일(13)

4. 여름(14-18), 여름의 고요함 따뜻함(17), 하늘은 늦으로 만든 겨울처럼 빛난다(18).

구름의 균형(16), 완벽한 지식의 하나님(16),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일거수 일투족

네가 하늘을 펼쳤느냐?(18), 우주의 팽창을 조금이라도 아느냐?

시104:2-4; 사40:22

하나님을 알려면 하늘을 보라.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라.

우리는 매일 푸른 하늘 아래 살고 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감(출24:9-10)

하늘을 보면 경외감이 생긴다.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를 작게 만든다. 하나님을 크게 만든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

구약성경의 대언자들은 하늘에 대해 자주 말한다. 시8:1-4, 롬1:19-20

결국 38-41장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늘은 딱딱하다(18). firmament(창1:14-17), 엄청난 밀도, 우주 공간 최대의 밀도

그 안에 모든 별들이 들어 있다.

엘리후의 질문. 네가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느냐? 심지어 좋은 날씨도 하나님에게서 온다(22).

네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18)

자연계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느냐?(23)

안다고 하면 삼켜질 것이다(20). 그러면서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나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24).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폭풍우가 몰아닥쳤을지도 모른다. 38:1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나타나심, 이제 드디어 읊은 그토록 원하던 것 즉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한다.

엘리후의 정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읊을 예비함(37:14-18). 38-41장 준비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

1.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가르쳐 줌
2. 읊의 문제 지적: 읊의 행동은 옳았을 것이다. 다른 세 친구와 달리 죄인, 위선자는 아니다.
3. 그런데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가 더 심해짐, “나는 다 안다”.
4. 결국 하나님은 38-41장을 통해 이 태도를 교정해 주신다.
5. 이 역할을 엘리후가 잘해냄.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좋은 대언자 33:23-24
5.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엘리후처럼 좋은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33:23-24)

결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귀의 전쟁, 이미 끝난 전쟁이지만 인간은 전쟁 참여 군사로 보고 있음

소대장에게 명령이 떨어짐, 그의 생각에는 많은 부상과 피해가 있을 것 같음

그런데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해야 전쟁에서 이긴다.

소대장에게는 전쟁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이해 부족). 또 전 군대를 지휘할 권위도 없다.

비행기를 타고 전세와 지형, 그리고 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령관만이 이해, 권위 소유

엘리후의 이야기: 우주 공간 전체를 통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만이 선으로 악을 누르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할 수 있다.

우리 사람처럼 한곳에 위치가 정해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의인에게는 결국 좋은 날씨가 온다(22). 그분은 위엄이 있는 분이다(22).

위엄(Majesty); 높이 계신다. 위대하시다. 사57:15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씨가 온다.